

몸을 몸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생각하였는가 생각을 해볼 때 참으로 절묘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은 신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신비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신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은사가 있어서 여러 가지 헌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체공부, 몸공부를 좀하고자 합니다. 인체는 여러가지로 분류됩니다. 인간의 몸은 목적과 관점에 따라 여러 “층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아주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 순서로 나누면:

분자/원자 수준에서, 세포(cell) 조직(tissue) 기관(organ) 기관계(organ system, 계통)

2. 큰 신체 부위(거시적 해부학적 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음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Head) 목(Neck) 몸통(Trunk) 몸통은 흉부(갈비뼈 안쪽에 심장, 폐)와 복부(골반부: 간, 위, 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 생식기관 등)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상지(팔)와 하지(다리)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창조(創造)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인간이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 일까요? 기독교신앙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죄(罪)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로마서1:20-23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萬物)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만물 중에 최고의 걸작(傑作)인 인간,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시편 139:14의 개역성경은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KJV는 I will praise thee;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marvellous are thy works;

생물학에 문외한에 가까운 저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중 가장 신묘막측한 것은 피(血)와 면역체계입니다. 면역체계는 우리 몸을 침입자와 이상 세포로부터 지키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면역체계는 “자기(self)와 비자기(non-self)를 구별해서, 해로운 것은 공격 제거하고 자기 몸은 보호하는 조직과 세포, 분자의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immune System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피에 넣어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말은, 다만 속죄에만 있지 않습니다. 피안에 있는 면역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더욱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고장날 때 알 수 있습니다. **immune System**, 면역 기능이란, 우리 몸의 평화와 질서를 저해하려는 여러가지 요인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軍隊)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수행은, 우리 몸의 림프계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항상 침입에 대비해서 비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수행하고 있지만, 그 중 침입에 대비한 적극적인 두 가지 전략(戰略)을 가지고 있습니다. **T-cell**과 **B cell**입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피중 백혈구(**white blood cell**)안에 들어있습니다.

백혈구는 혈액 속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모든 세포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단핵구/대식세포, 림프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중 **T 세포(T lymphocyte)**와 **B 세포(B lymphocyte)**는 림프구안에 들어가는 세포들입니다. 오늘 무슨 의학강의 같지만, 들어보세요.(오늘 좀 고생할 것입니다)

첫째, T-Cell이라 불리는 혈액세포입니다. (T-Cell, a group of white blood cells known) 주로 우리 몸을 침입해 들어온 바이러스나 종양에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T 세포는, 또 특수한 임무를 띤, 진압자 T 세포, 응원자 T 세포 등이 있어, 면역 반응을 조절 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직접 침입자를 겨냥한 킬러 T 세포 등도 있습니다.

(이것이 **T cell**이라 명명된 이유는, 이것이 흉선(**thymus** 胸線-가슴 흉, 줄 선)에서 분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흉선은 앞가슴한가운데 가슴뼈(u형) 뒤쪽 깊은 곳, 좌우 폐 사이 심장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기관)

둘째는 B-Cell 이라고 불리는 혈액세포입니다. 이 **B-cell**의 신비한 기능 중의 하나는, 한번 병원균이 침투하면, 이 병원균에 대한 기억능력이 있는 **B-cell**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 같은 외부물질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항체(**Antibody**)를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B cell**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CELL**이 골수(骨髓 **bone marrow**)에서 성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가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비한 점은 이러한 **T-cell**들과 **B-cell**들이 각기 독립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하게 도와주거나, 서로 합동해서 더욱 효과적인 기능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주로 우리 몸의 팔이나 다리 뼈 같은 긴 뼈 속의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치 신병 훈련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특수 훈련을 받으러 가는 군인들처럼, 혈관을 따라 퍼져 나갑니다. 이들 중 약 절반은, 가슴뼈 뒤에 있는 호두 알만한 크기의 조직인 흉선(Thymus gland)에 집결하여 훈련을 받고, **T세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주로 골수 내에서 획득 하며 항체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주로 림프절에 집결하여 **B세포**라고 불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몸은, 약 **백만 개** 정도의 새로운 임파구와 **천조 개** 정도의 항체 분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항상 **아군(我軍)**과 **침입자(侵入者)**를 구별하는 데 유의하고, 만약 침입자가 나타나면, 이들을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들과 대항해 싸웠는지를 기억(記憶)하여 적절한 대응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발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러지 반응이란, 우리 몸에 해가 없는 물질을 위험하다고 오판하여, 과잉방어(過剩防禦)함으로써 생기는 증상이며, 요즘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는, 우리의 면역체계, 특히 적의 침입을 알려주는 경보 역할을 하는, T세포의 기능이 파괴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균형된 상태를 파괴하려는 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상태로 환원시키려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 왔습니다. 뺨 발목이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을 경험하였고 대부분의 상처들이 저절로 아무는 것을 알았습니다. 17세기에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사람들은 백혈구(WBC)를 보게 되었고, 이것이 감염이나 상처 부위로 흘러와 모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더욱 발달된 현미경으로, 이들 중 일부가 혈액 내의 이물질을 파괴하고 삼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것들을 식균세포 (Phagocytes)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유사한 발견들이 계속 되면서, 우리 몸에는 질병에 대항하는 군대와 같은 조직적인 방어 계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가락을 베었을 때, 혈소판(Platelets)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세포가 나와서, 상처를 덮고 출혈을 막아 주며, 백혈구는 찢어진 상처로 침입하는 세균을 막기 위해 몰려오고, 적혈구(RBC)는, 치유 시키려는 조직 부위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려 달려와, 수일 후에는 상처가 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부러진 뼈는 더욱 단단히 붙으며, 뺨 다리나 곱친 발목, 당겨져서 아픈 어깨 등은 수 시간에서 수일이 경과되면 낫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방어 체계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의 육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면역 체계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는 매일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 주고 이 기능에 의해 우리는 아프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병을 물리치며 스스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의 몸이 고장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면역체계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이유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1절부터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을 섬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어서, 주의 몸을 섬기기 위해, 자기의 몸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8절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에 무엇을 말했을까요?

롬12:9-10을 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치료하는 면역체계라는 이야기를 오늘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1-3) * 위의 구절들은, 사랑이 없어도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적합니다. 많은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실행해도,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될 은사입니다.

이 구절들은 지난주 롬12:3-8절에 말한, **7가지 은사(카리스마)들을** 다 포함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고린도전서 12장 28-30절에 나오는 **9가지 은사**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통역 - 바울은 이 은사들을 말한 후에, 13:1-3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12: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한 다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랑의 은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 그 모든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린도교회의 10번째 은사요, 종결판(終結版)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사도가 로마서 12:9-10절에서 말한, 몸뉘는 교회의 면역체계인 사랑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여기에는 2가지 사랑에 대한 진리가 담겨있습니다.

1.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惡)을 미워하고 선(善)에 속하라”

사랑의 성격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라고 불리는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안녕하세요! 라는 말 정도처럼 흔합니다. 많은 말들이 진실이 없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KJV - Let love be without dissimulation.(위선).

사랑이면 다 통하는 것이 아니고, 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고전13:6)”**라는 말과 통합니다.

롬12:9 구절은, 사랑(Love)이야기 하다가 미워함 (Hate)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도망을 갑니다. 왜냐면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들러리를 서는 언니에게 보내는 눈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신부는 혼이 나갑니다. 그리고는 신랑의 사랑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망갑니다.

거짓 사랑, 악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1.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사랑

겉으로만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을 품는 사랑

예: 앞에서는 “집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면서, 뒤에서는 험담·비방으로 깎아내리는 경우.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셋을 치기만하면 사위를 삼겠다고 말하여, 다윗을 위하는 듯 보이게 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전투하다 죽을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딸 미갈은, 진정한 사랑을 했기에 다윗을 도피하게 합니다. (삼상 18; 17.21)

2. 계산적인 사랑(조건부 사랑)

이것은, 내 이익을 전제로 한 “투자형” 사랑입니다.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나 버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드라마의 젊은 이들에게서 결혼·교제에서 “상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이익”만 보고 관계를 맺다가, 파토가 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경제력, 인맥, 이미지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상대가 약해지면 곧 바로 떠나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는 “받기 위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기 때문에 하는 사랑”인데, 주기보다 받는 데 더 초점이 맞춰진 사랑은, 거짓 사랑의 전형입니다.

3. 방임과 방조의 사랑(악과 타협하는 사랑)

“상처 줄까 봐”, “관계가 깨질까 봐”라는 이유로, 분명한 죄와 악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태도는 악한 사랑입니다. 명백한 학대·착취·부정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해야 하니까 그냥 덮자”고만 하는 것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감정만 있고 희생은 없는 사랑

말과 감정은 많은데, 실제 희생·수고·헌신은 회피하는 사랑입니다.

예: “사랑해, 힘내”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거나, 물질로 돕거나, 함께 짐을 져 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나를 이용해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려고는 하지만,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랑, 그것은 이용(利用)입니다.

“땀도, 피도, 수고도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려 하지 않는 사랑은,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참사랑, 진리안에서의 사랑을 해야합니다.

2. 우애와 존경으로, 형제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건 사랑의 구체적 방법들입니다)

1)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10A)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NIV)

서로 우애(友愛)한다는 것을 여기선 헌신한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언가에 자기의 몸, 자기의 필요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같은 부분을 KJV는 Be kindly affectioned one to another with brotherly love (KJV)

Be (동사) + kindly (부사) + affectioned (과거분사 형용사)이고, 의미는 “다정한 애정을 품은 상태에 있으라”, “서로에게 가족 같은 따뜻한 애정을 품어라”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애입니다.

2)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NIV)

in honour preferring one another;(KJV)

헬라이어 존경의 단어 τιμή (timē)는 어원적으로 1. “가치를 매김, 값, 가격”에서 출발하여, “값, 가격” (물건의 가격) 2. “가치 평가, 명예, 영예, 존귀, 존중”의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2:10에서는 2번 의미, 즉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는 ‘존중/존귀함’”을 뜻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품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의 산정에서 도저히 존경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누가 먼저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원리는 “당신이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YOU’가 아니라 ‘I’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자세가 틀

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랑을 주지 않아도 나는 사랑해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제조건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복종하면 남편이 사랑하겠다는지, 남편이 사랑을 주면 내가 복종을 주겠다는지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상대방의 상태에 관계없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상호 함께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고받는 ‘교차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행복하고 함께 생존합니다. 한쪽에서 다른 쪽을, 계속 부담만 지면, 나중에 둘 다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해야 합니다. 오른쪽 손이 아프면 왼쪽 손의 도움을 받아 삽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낫지 않고 계속 부담이 가중되면, 나중엔 오른손조차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사랑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계속되기 심히 괴로워집니다.

셋째 원리는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NIV에선,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표준새번역) 서로 다정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다가가서 존경할 점을 찾으십시오, "Brotherly Love & Honor"

다시 **면역체계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의 설교제목입니다. 면역체계(immune System)가 무너지면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입니다.

1968년에서 1970년 사이에는 국제 항공 우주국의 의사들이 **우주비행사들의 비행 동안의 면역 체계 변화**에 대해 연구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장으로 들어오는 짧은 기간 동안(stressful period) 면역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면역 기능 저하에 대한 연구>로 최근 ‘과부’나 ‘홀아비’가 된 사람들의 면역 체계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특히 하계도 홀아비의 경우, 부인이 죽은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적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 1983년 발표된 뉴욕 시나이 의과 대학의 슈리퍼 박사 (Dr. Steven Schleifer)의 연구에서는, 부인을 암으로 잃은 15명의 남편들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면역 반응 측정에서, 부인 사망 후 2개월 동안 면역 기능은 현저하게 저하되었으며, 몇몇의 경우 10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회복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인간의 몸의 면역체계가 무너질 때 하는, 의과처방중에 최첨단에 속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CAR T Cell Therapy**라고 합니다. 망가진 면역체계를 고치는 것입니다. 피에서 백혈구를 대량수집해서 그중에 있는 T Cell을 수집해 교육합니다. 진리(眞理)의 교육입니다. 망가진 T셀의 분별력을 다시 키우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투여해서 교육합니다. 이것을 교육하는 데 2-4주가 걸립니다. 이렇게 훈련시킨 T Cell을 다시 본인의 몸에 집어넣어, 몸의 면역체계를 바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사랑입니다.

T-cell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Helper T cells입니다. 놀라운 것은 Helper는 삼위일체중 성령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보혜사(保惠師)라고도라죠. 보혜사는 인격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사랑의 영(靈)으로 인식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첫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갈 5:16)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인사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롬15:30)” 성령의 사랑이야 말로,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개인생활에서 적과 균을 죽이는 Helper T- Cell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 사랑을 하기도 어렵고, 서로 존경하거나 우애의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존재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랑으로라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사랑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의 면역체계는 늘 회복될 것입니다.

에스겔 33:31에 보면 에스겔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9:24 “지량하는 자는 이것으로 지량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전 16: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참사랑하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내게 이 사랑이 없을 때,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있을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아직 부족합니다.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랑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 의지하여 살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면역체계가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